

성미산 살리기 운동과 지역공동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김종호/참여와 자치를 위한 마포연대 상임대표

1. 주민과 함께 해온 성미산 지키기

1) 개발을 전제로 한 성미산배수지 공사- 난개발로 이어지는 아파트 건설

마포구 유일의 자연숲인 성미산에 계획된 서울시의 배수지 건설 반대, 한양재단의 아파트 개발저지를 통한 생태공원화 추진 주민운동이다.

2001년 7월 서울시의 성미산 배수지 건설 계획 소식을 접하고 지역주민들이 대안방법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며 2년여동안 반대운동을 펼쳐 배수지 공사를 중단시켰다. 주민들의 일관된 주장은 마포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미산 만은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고 배수지를 짓더라도 다른 대안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에서 이제는 배수지 정책이 문제 있음으로 해서 전면백지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쟁점을 벗어나 '배수지는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라는 원론만 반복하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안검토는 단 한차례도 하지 않은 채 긴 시간을 낭비하였다.

그러다 결국 설 명절을 앞두고 강추위가 몰아친 2003년 1월 29일 벌목을 강행하였고 분노한 주민들은 그 즉시 한겨울임에도 산 정상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여 120여일 동안 성미산에서 농성을 하였고, 현재는 공사가 중단기로 한 상태이다.

배수지가 들어설 경우 직접 수혜자가 될 7개동 주민들 대다수가 대안방식을 요구하며 반대하는 마당에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이므로 어떻게든 당초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소모적인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쟁점에 접근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안방식들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를 함으로써 합리적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였다.

성미산은 서울시 마포구 소재의 약 3만여 평의 마포구 유일한 자연숲이다. 성미산의 정상부분은 서울시의 소유이며, 남북의 양쪽 전부는 한양대학교재단인 한양학원의 소유지이다. 월드컵을 계기로 서울시는 배수지 건설을 한양학원은 도시계획상 운동장 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여 성미산을 개발한 후 정비할 예정이었다.

2) 성미산 개발 후 정비계획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성미산 남쪽(그늘나무 아래 부분- 성서초등학교에서 국민은행 사거리갈 때 담장쳐진 부분)은 12-15층짜리 4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다
- 성미산 정상부분 1만평은 서울시에서 배수지를 만든다. 이때 이 부분은 훼손이 불가피하며, 배수지 윗부분은 주민편의시설인 배드민턴장 등을 만든다.
- 북쪽지역은 공원용지로 확장하며, 한양학원측이 주민들에게 제공한다.
- 북쪽 공원지역은 주차장과 화장실, 체육시설, 열린마당같은 조그만 광장 등으로 정비된다.

2. 성미산배수지 건설의 근본적 문제점

1)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른 불필요한 배수지 건설계획이다.

배수지건설은 10년단위로 작성되는 ‘수도권정비기본계획’에 근거하고 고시후 5년단위로 타당성여부를 재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0년기본계획에서 1999년 현재 서울시 배수지가 130만톤 규모로 1일 최대급수량 기준 6.7시간에 불과하므로 향후 배수지를 지속적으로 확충 2006년도에는 1일 최대급수량을 12시간분, 2011년에는 131개소 316만톤 규모로 1일 최대급수량 기준 14.7시간분을 확보하겠다고 계획하였다.

- 그러나 실제로 2002년말 현재 유수율은 80%수준으로 증가했고 배수지용량은 214만톤으로 1일 최대급수량 대비 12시간분이 이미 확보되었다.

이는 서울시가 수요예측을 하면서 1인당 물사용량의 감소추세나 노후관교체등에 의한 유수율 증가치를 제대로 반영치 못해 실제 생산량(공급량)을 과다 책정한 채 배수지 추가건설만 예정대로 계속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수장은 이 기준에 의해 과다 건설되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이 지적에 의하여 서울시는 2002년도에 2011년의 배수지 목표였던 315만톤을 257만톤으로 축소하고 상당수 배수지 계획을 취소한바 있다. 줄어든 58만톤은 성산배수지 23개분에 해당한다.

2) 서울시 배수지 정책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서울시의 상수도 관련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2001년말현재 서울시는 상수도 부채가 6595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부채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수장 건설비와 유지관리비가 늘어나면서 서울시의 수도요금도 1997년 9.9%, 99년 14.9%, 2001년 14.9% 등 매년 급속히 인상되고 있다.

-수요량감소를 시설관련사업에 반영하지않고 있으며 고의로 무시한 사실마저 발견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서울시는 강북정수장이 착공된 93년 당초 예상과는 달리 수돗물 수요량이 감소했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울시는 하루 최대 급수량(수돗물 수요량)이 93년 602만 t 으로 91년에 비해 37만 t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66만 t 이 적은 536만 t 으로 되레 감소했다. 감사원은 93년 6월 강북정수장 실시설계서를 작성하면서 서울시가 이런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건설규모와 사업시기를 재조정하지 않아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3) 성산배수지건설은 불요불급한 사업이다.

-현재의 급수시설은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곳 7개동은 2001년에 와우산 배수지가 완공되면서 뚝도정수장→와우산 배수지→7개동으로 배수지를 통한 간접 급수가 시행되었고, 2002년 11월부터는 수계를 강북 정수장으로 변경하여 강북정수장→백련배수지+증산배수지→7개동으로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 수계전환 이후 현재까지 수압저하로 인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수계전환에 따른 별다른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서울시 공문에서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도 백련배수지와 증산배수지를 연결하는 간접급수방식으로 전환되어 있으며 정수장의 효율적인 운영도 이루어지고 있다. 굳이 성산배수지를 추가로 건설하여야만 간접급수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임시로 빌려쓰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배수지가 행정구역기준으로 편제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이므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실제로 영등포구는 관내에 배수지가 한군데도 없다.

-비상시에도 안정적으로 물공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정수장 사고시 비상저수조 역할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을 진행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미 178,500m³의 배수지가 건설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산배수지 용량 25,000m³이 없다고 해서

이 구역의 배수지로서 심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큰 규모는 아니다. 더우기 비상시에는 뚝도정수장을 통하여 비상급수되며 현재의 정수장 운전율이 비교적 여유가 있으므로 성산배수지가 없다고 하여서 비상시에 단수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비상시의 급수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지역배수지에 의존하기보다는 전체 수도체계의 안정성 차원에서 정수장의 생산능력 확보, 정수장과 배수지의 연결, 거점 배수지간 연결관망 확보 등을 통하여 해소하여야 하는 것이며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망체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강시켜 나가야 할 사항이다.

3. 성미산 개발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1)마포 구정의 녹지 정책상의 측면

마포구는 서울에서 자연 녹지가 가장 적은 구로 녹지보존과 개발에 가장 낙후한 환경을 보인다. 40만 마포인구를 상대로한 자연 녹지라면 노고산 꼭대기 일부와 성미산 그리고 상암동의 일부만이 있을 뿐이며 와우산은 배수지 공사로 자연숲으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녹지대를 확대하고 주거 환경을 친 환경적으로 바꾸는 시대추세에 역행하는 성미산 개발계획은 마포구 전체로 보아도 재고할 가치조차 없다.

▶ 성산배수지 입안부터 착공까지 10년 동안 환경피해와의 이익교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성미산의 생태적인 가치 측면

성미산은 자연상태의 아카시아 숲을 이루고 있어 그 자체로 보존 가치가 있다. 성미산에는 신문에 보도된 붉은배 새매 이외에도 소쩍새 솔부엉이등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철새 맹조류가 다수 서식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다양한 텃새들의 서식지가 되고 있다.

결국 성미산은 단독의 생태적인 가치 이외에도 한강권을 무대로 포식활동을 하는 맹조류에게 서식지를 제공하는 마포권에서 한강에 인접한 유일한 숲이다. 이 숲이 파괴된다면 한강을 무대로하는 생태권역에서 맹조류의 서식지가 없어지며 그나마도 존재하는 한강의 생태계를 흔들어 놓게 될 것이다.

일찍이 성미산 숲의 이러한 생태적에 기능에 눈을 돌린 조류보호협회에서는 부상당한 새들을 치료후에 성미산일대에 다수를 방사 했으며 그들은 철새로서 다시 성미산에 돌아오는 것을 확인 했다고 한다. 새 이외에도 풀과 곤충에도 틀림없이 보존적인 가치가 있는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 성미산은 작은 규모에 비해 생태적 가치가 높다.

○ 각종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시 도시생태 보전을 고려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실시한 비오톱 현황조사 결과에서도 성미산은 대상지 전체지역에 대하여 자연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 1등급 유형으로 평가되었다.

▶ 배수지 설치시 성미산은 근본적으로 훼손된다.

3)주거지의 경제적 가치 측면

아파트가 건립되면 상권이 형성되고 땅값이 올라갈거라는 기대를 말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아파트를 낀 일부지역은 상권이 형성되는 호조건을 맞을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으로는 주거 환경이 낙후해지며 현재와 같이 숲을 끼고 있기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없어 질 것이다. 교통의 편리성에 따라 땅값이 움직이는 시대는 서서히 가고 환경여건의 쾌적함에 따라 땅값이 움직이는 시대로 접어 들고 있는 시대에 성미산 개발은 장기적으로는 성산동일대의 주택지대로서의 가치를 떨어 트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4)한양재단의 부도덕한 측면

학원 재단이 그린벨트를 운동장용지로 만든 이후에 범망을 피해 건축을 시도하여 이윤을 남기는 것은 부도덕한 학원재단의 고유한 투기방식이다. 한양재단도 성미산 일대를 학교운동장부지로 구입하여 녹지를 용도변경하여 놓은 뒤 현재 건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양대학이 성미산에 운동장부지

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더욱이 교육재단이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부도덕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

▶ 배수지로 인한 환경훼손은 한양재단의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제안의 발미가 되고 있다.

○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환경친화적 배수지 건설을 이야기하지만 성미산보다 규모가 큰 산의 경우조차도 일부에 배수지를 설치하면서 산의 환경적 가치가 퇴색하자 주변토지 소유자들이 개발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마땅한 근거가 부족해 결국 개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산 전체가 파헤쳐지는 식을 반복하고 있고 이는 서울시내 뒷산의 황폐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 실제 와우산의 경우(삼성아파트, 태영아파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배수지가 들어서 있는 동네 산들의 경우 배수지가 들어선 이후 아파트건설 등으로 인해 산으로서의 가치를 잃었다.

4. 주민없는 일방행정

1)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사강행

수혜자인 지역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인 주민모임을 구성하여 2만여명의 반대서명과 함께 수없이 시청과 구청을 드나들며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밝히고 대안방식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천연기념물과 서울시 보호종들의 서식에 대한 내용조차 빠진 껍데기 환경성영향검토 보고서를 겨울철 불과 1달여의 형식적인 조사만으로 내놓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촉박한 일자에 환경성검토결과에 대한 검토회의를 하자고 한후 주민참여 없이 일방적인 진행을 하였다.

또한 대안검토는커녕 3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배수지는 필요한 공익시설이다’는 똑같은 설명만을 반복하며 주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켰고 그 주민설명회조차도 미리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생업을 가진 주민들이 참석하기 힘든 평일 낮 2시에 개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주민들만이 참석하여 분명한 반대의견을 밝힌바 있다.

2003년 2월 9일 주민들은 성산배수지 재검토 및 환경친화적 대안 마련을 위한 ‘검토기구’를 구성할 것과 검토기구의 활동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최종결정이 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상수도사업본부 측에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2003년 2월 13일) 검토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제시나 대화노력도 없이 주민들의 제안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공사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계획 예정대로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고 ‘주민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자문 받아 성산 배수지 대안방안을 마련하면 검토해보겠노라’는 무성의한 답변만을 보내왔다.

2) 주민이 없는 지방자치 - 공약을 지키지 않는 구청장

마포구청장조차 지역주민의 뜻과는 다르게 성미산배수지 건설에 찬성입장을 표명하면서 쉽지않은 과정이 많았다. 2002년 6월 구청장선거시 만드시 성미산을 지키겠다는 공약조차 무시하고 배수지건설 찬성입장을 밝힌 구청장은 구청의 모든 행정체계(구청직원, 동사무소직원,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관변단체) 총동원하여 배수지 찬성 서명을 받고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의 배수지관련홍보물 또한 통반장을 통해 가가호호 배포하기까지 했고 2003년 5월 17일 ‘배수지재검토를 위한 공청회’ 때도 구청의 차량을 이용하여 조직동원을 하는 일까지 있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투쟁으로 구청도 두손을 들고 말았다.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이번 성미산지킴이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함에도 서울시와 마포구청의 행정에는 사람이 없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몸으로 직접느낀 과정이었다.

아무리 관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면 마땅히 철회되어야함

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단한번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고, 일방적인 공사추진을 강행하였다. 성미산배수지 건설반대운동이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수혜자인 지역주민 다수가 반대하는 성미산을 지켜 환경을 보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미산이 가지고 있는 서울에서와 마포구에서의 사회학적 가치로 판단해볼 때 성미산의 소중함은 많은 지역주민들에게는 삶의 한부분으로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사람이 소중했던 기억들

- 2년여동안 지속된 성미산지킴이

1) 성미산을 지키는 주민연대 결성 - 2001년 7월 - 2002년 12월

2001년 7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발의로 ‘성미산을 지키는 주민연대(약칭:성지연-마포두레생협,우리어린이집,도토리방과후,날으는어린이집,풀잎새방과후,참나무어린이집,성만교회,성림사,신체조교실,건우회,나무회,성미향우회,성산향우회,체조교실)’을 조직하여 2002년 12월까지 활동을 하였다.

초기과정에서는 성미산에 애정과 관심을 가진 사람과 단체라면 성미산지킴이에 대한 제안을 하고 설명을 하여 같이 참여할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였다.

2) 성미산 개발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로 확대 - 2003년 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1년 6개월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3년 1월 8일 “성미산 개발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약칭:성미산대책위-성지연,성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서울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마포자치연대,개혁국민정당마포지역위원회,민주노동당마포을지구당,전국공무원노조마포지부)로 확대하여 활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대책위에 참여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대다수가 함께 해왔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3) 사람의 정을 느끼게 하는 성미산

성미산 개발문제가 알려지기 전인 2001년 5월에 처음으로 성미산 주변을 주무대로 한 “제 1회 성미산 마을축제- 동네야놀자”가 열렸다.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상징적인 성미산은 그렇게 주민들에게 새롭게 다가왔다.

4) 3회에 걸친 ‘성미산마을축제’와 4차례의 ‘성미산 숲속음악회’

이제 성미산 인근에 사는 지역주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의미있는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뛰어난 몇사람이 준비하는 축제와 음악회가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과 참여하는 사람이 모두가 같이 일을 나누고 함께 준비한 행사이다. 행사기금도 십시일반 모아서 3년째 행사를 만들어오고 있다.

마을축제의 처음 기획의도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즈음해 동네 아이들이 교통이 막히면서까지 멀리 나가 기 보다는 동네에서 놀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되었고, 그 성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동네축제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5) 2달만에 2만여명을 받아낸 성미산 개발반대 서명

2001년 8월 ‘성미산을 지키는 주민연대’를 만들면서 추진된 개발반대 서명운동은 성미산문제를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알려내고 동참을 이끌어낸 계기가 되었다. 지하철역에서의 서명, 한강고수부지에서의 서명, 가가호호방문 서명, 사이버서명 등 다양한 서명운동을 통해 지역내에 알려지지 않았던 성미산 개발문제를 본격적으로 알려내었다.

6) 다양한 일상 프로그램과 홍보전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새로운 소식이 있을때마다 홍보지를 제작하여 가가호호투입의 방식으로 홍보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다보니 지역주민들중 대부분이 성미산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성미산 문제는 알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쪽 홍보전이었다. 지난 1월 29일 별목후 당일 곧바로 열린 긴급 확대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설연휴를 반납하고 곧바로 천막농성을 시작하자”라는 결정을 하면서 언론쪽에 주되게 알린 내용이 바로 “지역주민들 성미산 기슭별목에 항의- 설연휴도 반납한채 천막농성 돌입”이라는 내용으로 각 언론사와 방송사에 긴급하게 알렸다. 설 연휴라는 어려운 점을 오히려 전화위복이 계기로 삼았다.

별목 이후에는 1-2주에 한번씩 홍보물을 제작하여 그때그때의 상황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렸고, 거리선 전전과 홍보전도 같이 병행을 하였다. 이 거리홍보전도 일로써가 아니고 그냥 즐거운 하나의 일상이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 소중하게 성미산을 느꼈던 계기는 3월 30일에 진행된 “성미산 가족나무심기와 숲속음악회” 행사였다. 별목된 성미산에 직접 자기의 이름이 쓰여진 나무를 심으면서 우리가 가꾸는 ‘우리의 산’으로 새롭게 태어난 날이었기 때문이다.

7) 환경을 중시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던 서울시와 마포구

당초 서울시는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가 반대가 심해지자 주민여론조사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장도 아래와 같은 공문을 통해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배수지 건설 사업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에 지역주민들의 뜻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뜻이 배수지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구청인 마포구청장에게 마포구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현재 주민의견 수렴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결과에 따라 배수지 건설사업 여부를 결정하고 하며, 귀 대책위원회에서도 주민의견수렴과정에 참여하여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양주체의 찬반이 명확한데다가 주민들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등 추진하는 측이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진행하는 여론조사의 불리함을 들어 반대했다.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서울시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92%의 지역민이 보존가치를 인정하고 반대하는 주민이 찬성하는 주민의 수를 넘어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다. 이는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기존에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된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이다.

8) 성미산 지키기 활동 경과

- 1993 : 도시계획시설결정
- 1997 : 실시계획인가
- 1997.11 ~ 2001. 4 : 토지보상
- 2001. 5 ~ 2001.11 : 실시설계용역실시
- 2001. 7. : 성미산을 지키는 주민연대모임 구성
- 2001. 8~10 : 성미산 개발 반대 주민서명(2만 명),
- 서울시청 및 마포구청 등 관련 기관에 주민의견 제출, 감사원 감사청구 제출
- 2001. 9. : 제1회 성미산 숲속음악회 개최(주민1,500여명 참여)
- 2001.10. ~ 2002. 1. : 환경성검토실시
- 2002. 1. : 상수도사업본부의 요식적 주민설명회 저지(주민 50여명 참여)
- 2002. 5. : 성미산 마을축제 및 제2회 숲속음악회 개최(주민 1,300여명 참여)
- 2002. 5 ~ 2002. 9 : 월드컵경기로 착공조정
- 2002. 6. : 6.13지방선거에 성미산 지킴이 구의원 후보 출마,(성산동, 연남동, 서교동)
- 2002. 7. : 상수도사업본부의 기만적 주민설명회 저지(주민 70여명 참여)

- 2002. 10. : 대안검토없는 주민 찬반토론회 저지(주민 200여명 참여)
- 2002.10.10 : 공사발주(조달청)
- 2002.12. 5 : 공사계약(효림종합건설외 4개사)
- 2002.12.12 : 공사착공
- 2003. 1. 8 : 성미산 개발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지역주민모임, 시민사회단체 등 참가)
- 2003. 1. 29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성미산 기습 별목
- 2003. 1. 30 : 성미산 정상에서 천막농성 시작
- 2003. 2. 2 : 성미산 정상에서 주민 합동 설차레 및 산제(30가족 설휴가 반납하고 성미산에서 설차레)
- 2003. 2. : 서울시청앞 주민규탄집회(4일, 19일-150여명 참여), 성미산 주민촛불집회(8일-400여명 참여)
성미산 대보름맞이 주민행사(15일- 300여명 참여)
- 2003. 2. 20 : 성미산 1차 공사강행 저지(100여명 참여)
- 2003. 3. : 망원역 주민촛불행사 개최(매주 토요일),
상수도사업본부 항의방문(10일), 서울시청앞 기자회견(12일)
- 2003. 3. 13 : 공사강행 저지(용역과 맨몸으로 대치하고 막아냄.- 200여명 상주)
- 2003. 3. : 출근길 서울시장 지하철 면담(14일),
마포구청장 주민합동 면담(19일- 주민 150여명 참여)
- 2003. 3. 30 : 성미산 가족나무심기 및 제3회 숲속음악회 개최 (천막농성 60일째- 1,200여명 참여)
- 2003. 4. : 성미산 환경과파반대 및 성산배수지 재검토를 위한 2차 주민서명운동 시작
- 2003. 5. 17 : 성산배수지 건설에 따른 전문가 공청회(천막농성 120일째- 주민 1,000여명 참여)
- 2003. 5. 24-25 : 제3회 성미산 마을축제 및 제4회 숲속음악회
- 2003. 5. 25-26 : 서울시와 마포구청 여론조사 실시
- 2003. 6. 11 : 문화재청 “지표조사뒤 사업 착수” 행정명령
- 2003. 6. 17 : 성미산 배수지 철회를 위한 서울시청앞 기자회견
- 2003. 7. 29 : 성미산 배수지 공사가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밀빠진 독상’ 수상
- 2003. 10. 16 : 서울시의회에서 성미산 배수지 공사 중단 발표
- 2003. 11. 8 : 성미산 승리 축하 마을잔치 (300여 주민 참석)

6. ‘우리산이야’ 처럼 느껴지는 성미산, 내가 지켜낸 성미산! 이제 마포를

2년여동안 진행되어온 성미산 지키기운동은 마포지역에 또다른 변화를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지역주민이 이해와 요구를 실현할 마땅한 시민단체가 없던 상황에서 이제는 성미산지키기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포지역내에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시민단체의 필요성을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제안하여 ‘참여와 자치를 위한 마포연대’를 만드는 성과가 있었다.

마포연대(준)는 2001년부터 진행되어온 성미산 지키기 운동의 성과로 태동된 지역단체라고 할수 있다. 마포연대(준)는 마포구민이 주인으로 서는 지역공동체,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주민의 권리를 지켜내는 지역공동체, 넉넉한 삶을 가꾸어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목표를 가지는 지역 시민단체이다.

2001년 7월 처음 성미산지키기 운동이 시작될 당시와 2003년 1월 29일 별목이후 그 추운겨울 성미산 정상에서 천막농성을 하는 중에도 많은 지역주민들은 과연 성미산을 지역주민들의 손으로 지켜낼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졌던게 우리의 모습이였다. 하지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촛불집회, 정원대보름맞이 행사, 가족나무심기 및 숲속음악회, 성미산마을축제, 시청앞집회, 주민청원 서명 등)와 2003년 3월 13일 서울시와 공사업체에서 동원한 용역강패들의 공사강행을 맨몸으로 저지한 것을 계기로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철회를 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야할 지방자치일꾼(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직접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도 성미산을 지켜냈다는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게 된 소중한 과정이었다.

마포지역에서 ‘도시에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어떻게 할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동화되어가는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7. 많은 분들이 도움과 조언을 주었기에 가능했던 일

지역주민들만의 힘으로 성미산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그동안 환경단체도 없었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도 있어 매시기마다 해당전문가나 단체의 자문을 구하였다. 초기에는 ‘생태보전시민모임’, ‘환경정의 시민연대’등의 도움을 받았고, 서울시립대와 건국대 교수님의 자문도 커다란 힘이 되었다. 또한 성미산대책위로 조직을 확대하면서 ‘서울환경운동연합’등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도움도 컸다. 그리고 다른 지역사례를 접하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활동을 펼친것도 중요하다. 특히 2003년 5월 17일 공청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수님과 전문가들이 내용적인 도움을 주시면서 서울시 배수지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많은 지역주민에게 알릴수 있었고, 이는 결정적으로 서울시의 정책추진에 문제가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알려낸 계기가 되었다.

2001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배수지가 무엇인지조차 몰랐던 것이 우리의 현주소였다. 심지어는 유수지와 비슷한 걸로 아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와 다른 지역의 사례를 파악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8. 꾸준히 해온 2년, 앞으로의 과제

무엇보다 2년여동안 꾸준히 성미산지킴이 활동을 전개해온 것이 중요하다. 매 시기마다 관성적인 형태의 사업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줄어들지 않은 것이 성미산을 지키게 된 동력이다. 마포지역은 협동조합형태의 공동육아방식이 전국최초로 시작된 곳으로 현재 5곳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9년의 공동육아 역사속에서 3년전까지만 해도 육아만을 고민해왔지만 2001년부터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마포구민이 주인으로 서는 지역공동체,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주민의 권리를 지켜내는 지역공동체, 넉넉한 삶을 가꾸어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성미산문제도 그런 시각에서 운동을 펼쳐온 것이 성과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책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의 영역을 찾아서 했기에 다양한 사업을 펼칠수 있었고, 미디어(방송,신문)쪽에 많은 기사가 나게 된 계기도 대책위에 참여한 지역주민중에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섰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지역에 거주하는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법률자문도 해줬기에 법적인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어갈수 있었다.

어떤 한사람이나 단체가 중심이기보다는 대책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과 단체가 일을 나누고 역할을 나누어서 진행했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주민홍보작업은 2003년 5월 17일 공청회 이후에 실시된 마포구청과 서울시의 일방적인 여론조사에서조차 성미산배수지 건설반대의견이 많게 나온 밑바탕이 되었다고 할수 있다.

그리고 대책위에 참여하는 단체별로 자기의 입장에서 성미산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지역현안문제인 성미산을 공동의 문제로 풀어갔다는데 있다.

조금 아쉬운 면은 이런 지역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단체가 없다보니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처가 초기에는 부족했던 것이다. 전문성이 없다보니 해당 전문가의 의견과 자문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점도 초기에는 어려운 점이였다.

앞으로의 과제는 어떻게 성미산을 잘 가꾸어가는냐의 문제이다. 아직 공원화 추진으로까지는 가지 못한 상황에서 언제든 개발의 여지는 남았기에 서울시와 마포구가 매입을 하여 생태공원화할때만이 개발을 궁극적으로 막아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유지이다 보니 무분별하게 산책로가 만들어져있고, 산 곳곳에 배드민턴장이 만들어지면서 산이 많이 훼손이 되었기에 앞으로는 지역민들이 함께 산을 가꾸어가는 ‘성미산 살리기운동’으로 지속성있는 사업으로 가야 한다.

이제 우리 마포지역에서는 그 동안의 성미산지킴이의 과정에서의 노력에 힘입어 주민자치의 작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계승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더 책임 있게 다가가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지역민이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단체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현재

성미산싸움이 완전하게 결말이 나지 않았지만 이후에도 지역에 수많은 현안과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에 지역조직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9. 현재의 성미산마을 지역공동체

- 도시 속에서 ‘생태’ ‘공동체’ ‘마을문화’ ‘이웃’ ‘고향’ ‘살림’ 을 실현하면서 살기위한 10여 년간의 모색과 활동의 결과, 현재 마포구 성산동 일대는 ‘성미산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도시속의 마을만들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 ‘성미산 마을’은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작은산인 성미산 자락에 터잡고 있는 마을을 일컫는다. 한국에서 최초의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이 만들어진 1994년 이후,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되고 2003년 성미산지키기운동을 성공시키고 난 후 자연스레 붙여진 이름이다.

- 현재 이 마을에는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4곳, 방과후 어린이집 2곳, 생활협동조합, 우리마을꿈터(마을학교), 마포연대(NGO), 성미산학교(대안학교), 성미산차병원(자동차정비조합), 동네부엌(반찬가게), 마포FM(공동체라디오) 등 마을공동체 의식을 가진 여러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